

2023

학교평생교육 소식지

행복한 동행



1

〈꿈 잡고 드림 업〉
초등 미디어 캠프

매탄초등학교 교사 이은지

3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유튜브 채널

반송초등학교 교사 박준호

5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

前 풍양초등학교 교감 문종희
북정고등학교 교장 이현주

9

꽃차 소믈리에
2급 자격과정

前 정왕고등학교 교장 이산옥

11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초등 3단계 담임교사 이해하

13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안양시인대학 대표 최유경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꿈 잡고 드림 업> 초등 미디어 캠프 후기

... 매탄초등학교 교사 **이은지**



교직 생활 4년 차이자 코로나 첫해였던 2020년 말, 나는 교사로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는 열정에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관심이 많아 연수를 들으며 공부하다가, 혼자 하는 공부에 한계를 느껴 학교 밖을 벗어나 다른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도 커지게 된 참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 몽당분필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 몽당분필(디지털 미디어 교육콘텐츠 교사연구협회)의 5기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디미교연 몽당분필은 8년 전 학교 밖 전문적학습 공동체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90여 명의 초등교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갖기도 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하여 교사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계획 중이다.

나는 올해 몽당분필에서 교육격차해소부장을 맡게 되어 몽당분필의 주요 사업인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렇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한 여름방학 학생 미디어 캠프에 우리 몽당분필의 멋진 능력자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꿈 잡고 드림 업> 초등 미디어 캠프는 진로 적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을 넘어 균등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얻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를 수 있도록 총 6개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8월 7일부터 9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강좌 특성상 여러 종류의 디지털 기기가 많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네트워크 환경이나 연결 장비 등 준비가 복잡했지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연구사님과 주무관님 덕분에 수월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1일 차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모바일 영상편집 앱으로 크리에이터 되기> 과정으로 구성되었는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춘 디지털 시민의식과 활용 능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배운 다음 키네마스터 앱으로 영상 제작 실습을 해 보았다.

2일 차에는 <하루 만에 배우는 디지털 드로잉>과 <캔바를 이용한 자료 제작>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아이패드의 프로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디자인 플랫폼 캔바에서 발표 자료 제작을 배우면서, 취미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듀테크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마지막 3일 차에는 <오쿨러스 퀘스트 체험 및 실습>과 <투닝으로 네 컷 만화 만들기>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VR기기인 오쿨러스 퀘스트2를 1인당 하나씩 사용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웹툰 제작 사이트인 투닝을 통해 재미있는 웹툰도 만들고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나는 2일 차의 <하루 만에 배우는 디지털 드로잉> 강좌와 3일 차 <오쿨러스 퀘스트 체험 및 실습>에서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톨망톨망한 눈으로 설명에 집중하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학생들 덕분에 아이패드와 터치펜으로 멋진 작품을 2개나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림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수정이 쉽고

도구 사용이 간단한 디지털 드로잉을 하면 누구나 멋진 작품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아이패드 드로잉을 난생처음 해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고, 스스로 성과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오쿨러스 퀘스트 체험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가장 신기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다. 메타버스 세상 속 다양한 활동을 하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부듯했다.

학생들은 이 꿈잡고 드림업 6개의 과정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고 학교에서 많이 쓰이는 각종 에듀테크 도구 활용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과 VR을 기반으로 하는 기기를 조작하면서 미래 기술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진로 적성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꿈 잡고 드림 업> 학생 미디어 캠프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더니 그새 구독자가 늘었다는 학생, 집에 있는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를 설치해서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갖게 됐다는 학생, 접하기 어려운 VR기기를 체험해본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학생 등 캠프에 참여한 여러 학생의 소감을 들으며 캠프를 준비한 입장에서 굉장히 부듯하고 또 행복했다.

나는 앞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교육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꿈 잡고 드림 업>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디지털 미디어 교육 격차 해소에 힘쓰고 싶다. 우리는 현재 엄청난 디지털 미디어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말 그대로 디지털 대전환이다. 학교나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접하는 미디어 교육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하고 싶다.

앞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이 귀한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디지털 미디어에 소외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 간, 지역 간, 학교 간 디지털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평생교육학습 유튜브 브랜딩 후기

... 반송초등학교 교사 **박준호**

(사)디지털미디어교육콘텐츠 교사연구회 몽당분필 대표이사



2018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유튜브 미디어 지원단에 합류한 순간부터, 저는 브랜딩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교육연구사님과 함께한 이 여정은 단순히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교육을 새롭게 형상화하는 임무였습니다. 번데기학교, 부모숲학교, 오파학교 - 이 세 채널은 각각 청소년, 학부모, 시니어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번데기학교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을 넘어서는 평생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놀이, 감성, 연결, 인간생태, 지민 5가지 마인드셋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학습 내용을 디지털 테크놀로지, 미디어와 결합하여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놀이, 감성, 연결, 인간생태, 지민 파트를 교육영상콘텐츠의 뿌리로 삼아 구조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원단 규모가 50~60명 규모로 성장하였지만, 당시만 해도 교사이면서 크리에이터를 찾기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교직원들의 창작 욕구를 수용하고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후 학부모교육에 대한 콘텐츠도 시작하였습니다. 부모숲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오파학교는 퇴직 교직원과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학습 기회와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브랜딩 과정에서 채널 로고, 인트로 영상 모션 그래픽, 드론 촬영, 콘텐츠 및 홍보 영상 제작 등은 각 채널의 특색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채널 홍보 영상 제작 현장)

이 과정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많은 선생님들의 손을 빌렸고 감사했습니다. 현대 교육계에 디지털 대전환으로 공동생산과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학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유튜브 채널 브랜딩과 교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은 이를 선생님들이 먼저 체험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협업 과정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이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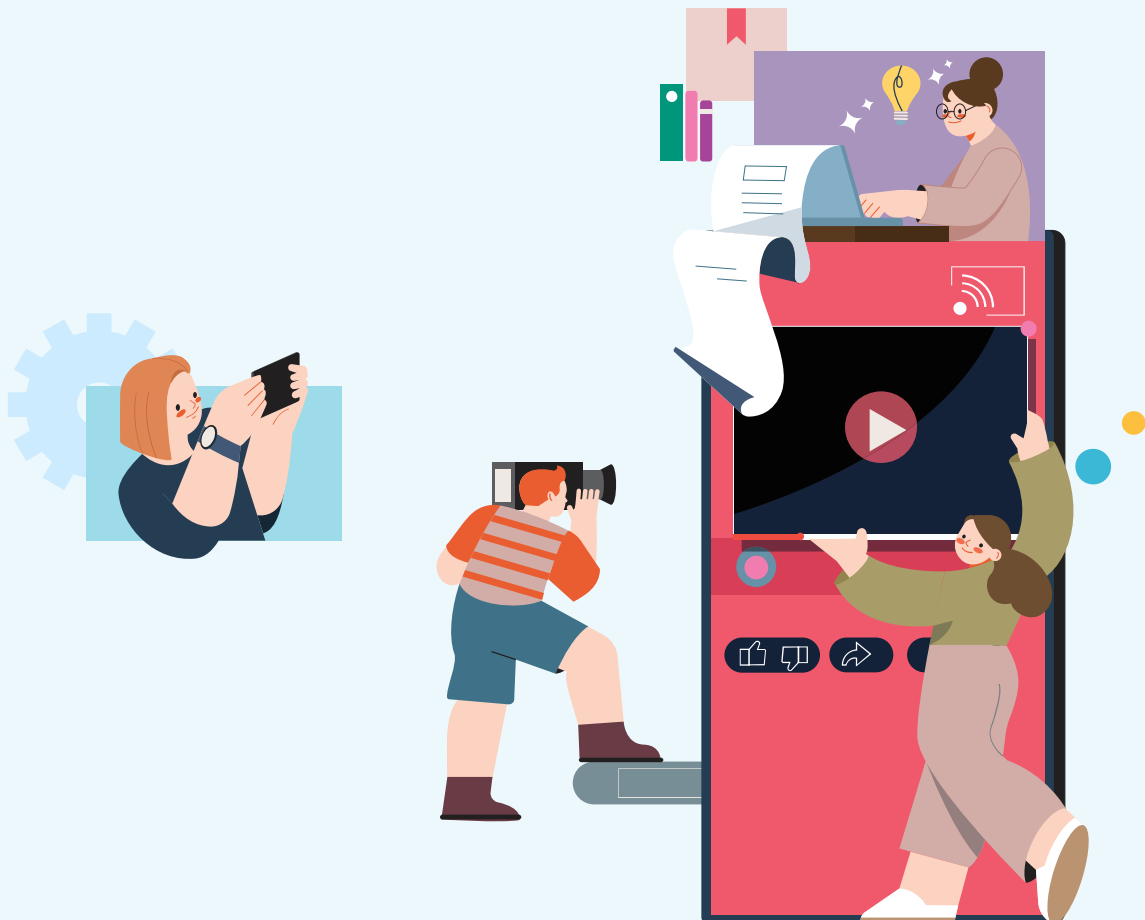
채널 아트 하나하나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신과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경기도의 교육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각 채널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각 채널은 자신만의 색깔과 목소리를 갖게 되었고, 구독자들에게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브랜딩의 힘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교육의 영역에서 브랜딩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유튜브 채널 세 개를 브랜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 사회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의 성장은 물론, 교사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이 평생교육의 가치를 발견하고, 평생 학습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함께한 이 여정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유튜브 채널들로 인해 경기도의 평생교육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 소중한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갈등의 엉킨 실타래가 풀리는 놀라운 연수

... 前 풍양초등학교 교감 문종희



인간(人間)이라는 단어의 어감은 독립적 개체로 느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자를 들여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 맺기’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관계 맺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 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는가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는 38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얼마나 증폭되어 가는지, 마침내 갈등이 어떻게 파괴적으로 폭발하는지를 경험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은 갈등을 응보적 관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한다.

방법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종결할 수 있다는 착시를 일으켰고, 교육 현장에서마저도 에누리 없이, 가차 없이 잘못에 대한 ‘벌’로써 상황을 종료하게 했다. 여기에 교사로서의 딜레마가 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응보적 해결 방법은 세상에 ‘악’을 더 넘치게 할 뿐이었다.

다양한 시행착오 앞에서 잘못에 대한 인정과 치유의 기다림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상생을 배우는 시기가 청소년, 청소년기 배우의 과정이다. 이런 배우의 시기는 효율성을 포기한 인내와 용납의 긴 시간을 요구한다. 이 느린 배우의 시기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세대는

자신의 잘못이 상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나아가 공동체에 미친 해악의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의 질이 낮아진 공동체는 신음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교육 현장도 갈등에 매몰되어 신음을 넘어 거의 질식 상태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응보적 관점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에 이른 시점에 만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진행한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은, 관계 속의 갈등을 응보적 관점이 아닌 회복과 상생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연수였다.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수는 회복적 정의와 대화모임 전문가 과정으로 필수 1단계 회복적 정의와 서클진행, 고급 2단계 회복적 정의와 갈등 해결 과정으로 구성된 총 84시간의 긴 과정이었다.



서클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연수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와 시간을 공정하게 제공받았을 때의 감동은 상상 이상이었다. 거짓 없는 자기 이야기가 술술 나왔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경청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며, 30명의 연수생 모두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연대하는 경험으로 만족스러워했다.

그동안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주된 방법이었던 ‘응보적 정의’는 잘못에 대해 누가 어떤 법과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성취된다. 반면 ‘회복적 정의’는 잘못으로 인해 개인과 공동체(피해를 본 당사자, 잘못된 당사자와 영향을 받은 공동체 구성원)가 겪은 해악을 바로잡는 것으로 성취된다.

응보적 정의의 실현은 매뉴얼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종결되나, 피해 당사자의 회복이나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벌’로써 종결되니 공동체의 해악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 실현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동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지 직면함으로써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에 책임을 다하여 공동체의 해악을 바로잡게 된다.

이런 ‘회복적 정의’의 측면의 생활교육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회복적 문화를 만드는 데 교육 관련 퇴직자들의 역할이 지대함을 간파하고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실무팀의 안목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구성을 ‘숨(翫)’에 초점을 둔 신의 한 수에 감탄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수는 ‘학(學)’에 치중하여 실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없는 머리에서의 지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진행한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은 퇴직자들이 반평생 쌓아 온 ‘학(學)’을 익히는 ‘숨(翫)’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하여 갈등의 현장으로 곧바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챙겨 준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습관의 치밀한 준비 못지않게 참여자들의 열정도 빛났다. 회복적 관점의 질문을 만들어 피드백하고, 실제 피해 당사자나 가해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훈련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무엇보다 절망적이던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은 매시간 성실로 화답되었다.

연수 종료 후 나는 담임교사와 갈등을 겪는 한 학급의 평화 씨클을 진행했다. 2시간을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갈등은 해결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경기평생교육원에서 실습한 ‘회복적 질문’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 나아가 평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눈물로써 나누는 시간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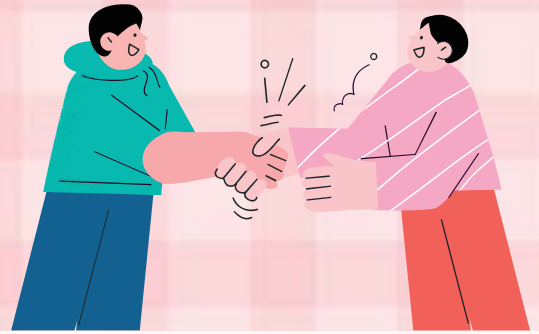
3주 후 후속 모임을 위해 재방문했을 때, 모두가 포기했던 그 학급은 지극히 안전한 학급으로 회복되어 있었다. 회복적 정의의 관점으로 갈등에 접근했을 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84시간 연수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많은 퇴직자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선에 서서 건강한 사회의 한 축을 기꺼이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계속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응원한다.



퇴직(예정)자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 참여 후기

●●● 복정고등학교 교장 이현주



인생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인생 후반의 삶을 더 보람이 있고 윤택하게 할 제2의 인생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며 30년 넘게 지내왔고, 3년 뒤 정년퇴직을 바라보며 퇴직 후 삶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중,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실시하는 2023년 퇴직(예정)자 대상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이란 공문을 보게 되었다. 평소 상담과 회복적 정의, 갈등 조정에 관심이 있었고, 학교조직의 특성과 다양한 갈등 양상에서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 등 삶에 대한 필요를 느껴 바로 신청을 하였다.



현직에 계신 원장, 초중고 교사, 교감,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과 연수를 받는 중에 8월 말에 정년퇴직하신 분 등 30명이 이번 연수에 참여하였다. 연수 내용은 필수과정 1단계 회복적 정의와 서클진행,

필수과정 2단계 회복적 정의와 갈등 해결, 서클진행 전문가 2급 자격과정, 필수과정 3단계 갈등조정과 대화모임, 필수과정 4단계 트라우마와 회복탄력성, 갈등조정 전문가 1급 과정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여름방학 중 무더위를 이겨내며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42시간, 새로운 2학기가 시작되어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42시간 총 84시간의 교육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 속에 마칠 수 있었다.



요즘 학교 현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행정실 직원, 행정실무사, 교무실 실무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청소용역, 당직자 등 다양한 직군이 모인 공동체이다. 그러다 보니 업무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통, 공감, 협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사소한 일로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져 학교폭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연수 내용을 토대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상처 회복의 부재, 근본적 책임 부재로 인해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갈등 당사자와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왔다.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회복적 훈육의 방향으로 ‘잘못 → 피해 발생 → 책임질 의무 발생 → 책임 이행 → 피해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때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 학생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여 교우관계가 개선되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어 존중과 배려의 교육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드나들며 평생교육을 영어로 표현한 ‘Life-Long Education’이란 단어가 늘 마음에 와닿았다. 교육, 학습이란 것은 평생, 생애 전반에 걸쳐 길게 해야 하기에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춰 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였다. 이런 기회를 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고마움을 가진다.

갈등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갈등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 속에서 평화롭게 갈등이 해결되면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의 기회가 되고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을 통해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 대해 조정과 화해 중재의 역할을 하고 싶으며, 화해와 회복 중심의 갈등 해결을 통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싶다.



꽃차는 향과 색의 향연이요, 정성과 기다림의 미학이다.

... 前 정왕고등학교 교장 이신옥



꽃차 소믈리에 연수를 끝나고 가는 날은 유독 전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노을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8월 어느 날 퇴직을 준비하는 나에게 관심이 가는 문자가 왔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꽃차 소믈리에 2급 자격 과정이 있다는 내 아름다운 베프의 고마운 문자였다. 바로 이거로구나! 급하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했다. 20명 모집에 18번째. 설렘 반 기대 반으로 9월 12일을 기다렸다. 꽃차보다는 커피를 더 좋아했지만, 퇴직했으니 우아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더불어 마음을 담백 담은 꽃차 선물까지 하면 좋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화요일. 수제 꽃차에 향을 담기까지는 이런 정성과 기다림이 있었음을 감탄하면서 서로 피곤함을 다독여야 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화요일이 지나면서 꽃향 만들기에 더 정성을 쏟는 손길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화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가슴이 설렘고, 심지어 퇴직하고 나면 가려던 여행까지 뒤로 미뤘고, 지인들과의 만남도 화요일은 피해서 약속을 잡았다.



연수를 받고 와서도 꽃차 향을 만들기와 덫기는 1시 2시까지 계속되었고, 꽃차에 향을 머금게 하는 잠재우기까지 피곤함 속에 피곤함을 잊게 만드는 각양각색의 꽃차 향과 수색에 매료되었다.

이렇게 매주 화요일 12번을 장미 향에 취하고, 천일홍 향에 취했고, 메리골드 향 등에 취했다. 더불어 꽃차를 통해 정성과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고, 꽃차를 만드는 것도 교육활동처럼 정성을 다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모두가 친절하고 열성적인 강사 선생님, 5인 1조가 되어 배우고자 열정을 보였던 교장선생님들, 강사 선생님이 제공하는 맛있는 간식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를 받아서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사보다 젓밥에 눈이 어둡다고, 오늘은 어떤 차를 만들지보다 강사님이 제공하는 간식이 무엇일지가 기대가 되었고, 간식은 기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허기를 달래주었다. 이 에너지로 더러는 교장실에서 선생님들과 교실에서 학생들과 꽃차를 나누며 소통했고 행복을 나누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열어 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대전에서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강사 선생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성과 기다림을 실천하시는 선생님, 모든 이들과 꽃차의 향과 색, 정성과 기다림의 행복을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교사가 은퇴한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과 전공을 살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 해설가나 숲해설가 등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주길 제언해 본다.



나는야 행복한 문해 교사

... 경기봄날학교 초등 3단계 담임교사 **이혜화**



문해 학습자를 처음 만나는 날은 언제나 같은 기분이다.

희망과 어색함이 반반 섞인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연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습자의 시선을 기대해 보지만, 이 교실은 전혀 다르다. 교사를 응시하지 못하는 눈동자들이 교실 바닥과 벽 사이를 훑다 어느 순간 눈길이 마주쳤을 때 황망을 가득 안고 황급히 고개를 숙인다. 교과서를 선뜻 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손길의 어색함, 60여 년의 지나온 세월을 응축해놓은 공기가 교실에 낮게 깔리고,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낯선 곳에 던져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계신 분들 앞에 선다. 이 시간을 이용하여 활기차고 밝은 교실을 만드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한없이 구겨지는 자신감을 일으켜 세우며,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우리 학습자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문해교사 이혜화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고단함을 말로 다 할 순 없겠지만, 세상을 살면서 시간마다 뼈아프게 느꼈을 못 배운 한을 가슴 가득 안고 계신 분들 앞에서 나는 선생님이 된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어려우신 분들이다. 자신만의 선생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이 낱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본다.

아이들의 선생님, 동네 어르신을 부르던 말,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선생님, 그렇게 멀게 느끼던

말이다. 자신에게 선생님이 생긴다는 것은 생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처음 학기가 시작되면 한동안은 눈치 싸움이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리기 싫던 분들이 긴 세월 쌓은 내공을 부수고, 진짜 본인의 실력을 알기 위해 많은 방법이 동원된다. 받아쓰기나 읽기는 기본이지만 수학 계산이나 알파벳, 사용 가능한 어휘의 수……. 내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학습자의 진짜 실력을 알아내야 한다. 학습자가 교사를 믿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몰라요.”, “알려주세요.”라는 말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는 나오기 어렵다.



삐뚤삐뚤 쓰인 아파트 이름이 적힌 종이, 버스 안에서 매일 보지만 무엇인지 몰랐던 “BUS STOP”이라는 글자를 찍은 사진, 주말에 아들과 함께 갔던 커피전문점에서 마셨던 음료의 이름, 그리고 언제나 궁금했던 자신의 영어 이름…….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이 쏟아져나오며 교실은 웃음과 재잘거림이 가득한 진짜 교실로 변신한다.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나면 교실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곳이 된다.

국가평생교육원에서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 그리고 간단한 셈하기가 불가능한 성인 비문해자는 무려 200만 명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학습자는 바로 이 성인 비문해자다.

내가 만나는 비문해자의 이름을 가진 학습자 마음 안에는 꼭꼭 숨겨진 상처가 가득하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들에게는 밝히기 무섭다. 내가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하는 두려움에 은행 갈 때마다 팔에 봉대를 감고, 내 일을 대신 봐주며 신뢰를 쌓은 친구는 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긴 세월 사람에게 다친 상처는 완치 불가능한 흉터로 가슴 안에 남는다.

처음 문해 현장을 접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 시설도 좋아졌고, 정부의 지원도 늘었다. 문해교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많아졌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해교육 시설은 아직도 넓고, 좁고, 부족하다. 박자가 맞지 않는 계단과 거리의 소음,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전혀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좁은 교실, 조금 더 넓은 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좁은 복도가 있는 곳이 많다. 다른 문해 학습관과 비교해 보면 이곳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봄날학교 시설은 단연 최고다. 4층까지 이어진 전용 엘리베이터와 넓은 교실, 넓고 안락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교사가 언제나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학습지원실과 전폭적인 지원은 다른 문해 현장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일이다. 이곳에서 나는 학습자를 만난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지만, 이 학습자들이 살아온 세상은 그 평등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형제가 많은 집안에 맏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장남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이 지금 여기 봄날학교로 모인다.



높은음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짜증을 낼 수는 없는 곳, 눈을 보고 입 모양을 보고, 가장 쉽고 정확하고 보편적인 낱말을 찾아내 설명해야 하는 곳, 긴 세월 눈치로 살아오신 분들이라 아는 척이 더 익숙하신 분들에게 “몰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려워요.”라는 말을 꼬집어내야 하는 곳, 긴 시간 글자의 칼날에 베이고 덧난 학습자를 보듬어, 글과 친구가 되게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는 교실 앞에 선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발걸음이 에릭 사티의 첼로곡 같이 무겁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제보다 반보쯤, 아니 반의 반보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동안의 세월의 원망쯤은 다 이겨낼 거라고, 따뜻하게 오랫동안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교실이 되기를 바란다.

이분들을 만나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이분들과 함께 지내는 지금 여기 이 학습관이 얼마나 좋은지, 누군가와 마주하는 이런 공간과 시간 안에서 함께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금을 감사한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봄날학교의 시간과 따스함에 조금의 온기를 더하는 나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봄날학교에 늘 감사한다.

나는 문해교사일 때 가장 행복하다.



준비됐나요?

... 안양시민대학 대표 **최유경**

나를 비롯하여 우리 기관의 문해교사들에게 늘 하는 질문이다. “준비됐나요?” “가르칠 준비됐나요?” “학습자들과 만날 준비됐나요?” “수업할 준비됐나요?”



이번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연수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이 되기 위한 준비 때문이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강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나는 문해교육 전담기관을 운영한 지 사실 20년이 넘었다. 2008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1차 문해교육 교원연수가 실시되었고, 나는 1기생으로 연수를 받았다. 그 당시는 초등과정·중학과정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 받은 연수는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로 간주되었다. 나는 1기생으로 연수받은 후 바로 2차부터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원연수 강사 활동을 해오고 있었으나, 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이수 기록이 없어서 결국 이번 기회에 연수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연수 참여를 결정한 후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인 것은 포트폴리오 작성이었다. 포트폴리오 심사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바라 더욱 신경이 쓰였다. 민망함과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썼다. 사람들은 “문해교육 경력 25년 전문가가 설마 떨어지겠어요?”라고 했지만, 그런 안일함은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자기 생각과 언어로 정성껏 써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싶다.

연수 강의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참여하게 되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다. 가보니 연수생들의 70% 정도가 초중고 교직원들이었고, 문해교육 현장 교사들은 많지 않았다. 서로의 교육 현장에 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울 점이 많았다. 제한된 강의 시간에 듣지 못한 문해교육 현장의 궁금한 이야기를 쉬는 시간마다 내게 질문을 많이 해서 나름 쉬는 시간에도 바빴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의미 있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인상 깊게 들었던 강의는 “문해교육 현장에서의 학습자 학교 적응”에 관한 강의였다. 봄날학교의 학습자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얻게 된 문해 학습자의 특성, 활동 실제, 학교 적응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자신의 현장 안에서만 깊숙이 들어앉아 있으면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확신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다른 시선과 해석을 경험하고 나의 경험과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교사들의 학습자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에 감동하였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과정의 꽃은 멘토와 함께하는 소그룹 멘토링 과정이 아닐까 싶다. 소그룹으로 연수생들과 멘토가 함께 엮어내는 경험의 나눔, 소통의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6일간의 대면 교육을 마치고 다시 시작된 5일간의 현장실습은 진심으로 감동이었다. 타 문해교육 기관을 방문해서 그 속에서 학습자들을 만나고, 그 기관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세세히 설명 듣고 수업을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문해교육은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달리 정말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였다.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문해교육 현장에서 내게 다시 질문한다. “준비됐나요?”

다음 보수교육을 기대하며, 2023년 경기도교육청 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과정에 참여한 소회를 마친다.



발행인 윤재철(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5
전화번호 031-259-1028
홈페이지 <https://lib.goe.go.kr/gglec>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